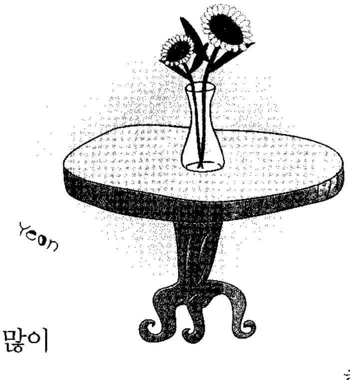
여우가 늑대를 유혹하려면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고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관계를 가져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싶어요. 다른 남자애들이라면 안 그럴 텐데 제 남자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잘못했다면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성이란 매개체를 이용해 확실하게 하려다 거절을 당했군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화도 많이 났었겠어요.

♡♡님에겐 단도직입적으로 써야겠어요.

사랑을 성으로 살 수 있다는, 또는 엮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조선시대이거나 30여년 전이라면 성으로 사랑을 묶어 둘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이란 굴레에 묶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남자에게 종속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남자와의 육체적 접촉(심할 경우에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 때문에 그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했었지요.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마음에 들면 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 접촉으로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여자들도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 옷을 벗었던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성으로는 사랑을 살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매어 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겨 두세요.

♡♡님!

멋진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요즘 어떤 남자들이 여자 스스로 성적으로 접근해 오는데 거절하겠어요. 상대방이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의 쾌락을 위해 응하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님을 존중하고 깨끗이 지켜주고 싶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니 말이에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절하기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생각이 올바르고 곧은 성격의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한 점. 깊이 반성하고 정중하게 '사과'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의 짧은 생각으로 너를 의심한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고 말이죠.

남자친구의 마음처럼 ♡♡님도 자신의 생각, 미래에 대한 꿈, 설계 등을 키워 가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자신에게 주워진 일들을 충실히 해 멋진 숙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PPFK